

언약을 지키라

말씀: 말라기 2:1-16

요절: 말라기 2:5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오늘 본문말씀도 1장에서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뉘어 집니다. 먼저 1절에서 9절까지는 제사장들을 향한 명령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10절에서 16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 주시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난 주 말라기 1장에서 그 시대의 근본문제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불신하고,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기 때문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제사장들이란 백성들의 목자요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제사장들이 여호와와 말씀을 멀리하고 말씀 앞에서 떨어져 여호와를 섬기지 않을 때 백성들이 영적 기근을 만나고 죄 가운데서 방황하게 될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제사장들의 사명, 책임은 실로 무겁습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명령을 하십니까? 이 시간 오늘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이 시대 영적 제사장들로서의 사명을 새롭게 깨우치고, 붙드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I. 언약을 깨뜨렸느니라(1~9)

1절을 보십시오. “너희 제사장들아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1) 하나님은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그 시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십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종들로서 구별된 자들이었습니다. 7절에 보면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와 사자”(7b)라고 하였습니다. The messenger of the Lord of hosts. 제사장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와 말씀을 맡아서 전달하는 하나님의 대사, 사신입니다. 한 부대의 소대장만 되어도 상관의 명령을 잘 듣고 분명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전쟁시에는 명령 불복종은 총살감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습니까? 2 절을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
 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려 너희의 복을 저
 주하리라 내가 이미 저주하였나니 이는 너희가 그것을 마음에 두지 아니
 하였음이라”(2) 그 명령의 말씀은 너희가 만일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
 니하면 내가 너희에게 저주를 내리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
 게 한다는 것은 어떤 것이며,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은 무엇입니까? 2절을
 자세히 살펴보면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제사장
 에게 가장 중요한 사명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말씀을 잘 듣
 고 마음에 새겨야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잘 전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러데, 당시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지 않았습니다. 말씀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말씀이 마음에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
 나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대
 제사장들을 저주하시겠다고 경고하십니다. 아니 이미 저주하셨다고 하십니
 다. 그들에게 임한 저주가 무엇이었습니까? 3절을 보십시오. “보라 내가 너
 회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3) 여기서 “내
 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손을 거두
 신다(70인역), 하나님께서 그들의 팔을 못쓰게 하신다(JB,NEB),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씨를 거두신다(KJV), 그들의 후손을 끊어 버리신다(RSV)라는 의
 미가 있습니다. 제사장 직분은 이스라엘에서 가장 영광스럽고 존귀한 직책이
 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 직분이 영광스러운 축복인 만큼 이 직분을 잘 못
 감당할 때 하나님의 저주 또한 무서웠습니다.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청종치 않았을 때 이스라엘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는 수난을 겪었
 습니다. 성전은 파괴되고, 제사장들은 직분을 잃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음으로서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않는 제사장들의 얼굴에 똥을 바를 것이라고 하십니다. 얼굴에 똥칠한다는
 말은 수치와 멸시를 당하게 한다는 말씀입니다. 제사장 곧 주의 종들이 하나

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마음에 두고 순종할 때 성도들은 주의 종을 극진히 존경하고 사랑했습니다. 좋은 것이 생기면 먼저 목사님께 가져갔습니다.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었고, 주의 종을 공경하는 것은 하나님께 대한 경외심이었습니다. 또 세상에서도 목사의 직책은 존경받고 영향력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목회자의 위상이 말이 아닙니다. 검사가 사건조서를 작성하다가 목사라고 하면 더욱 의심의 눈초리를 보낸다고 합니다. 이렇게 목회자들과 신자들에 대한 사회적인 신뢰도가 떨어진 것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제사장의 직책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마음에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3b절에 보면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당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잘라 버린다고 경고하십니다. 우리가 두렵고 떨림으로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경외심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하자 하나님이 말씀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찔리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와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삼상15:22,23) 사울은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 되는 엄청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고집부리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블레셋과의 길보아 전투에서 세 아들과 함께 죽고 말았습니다(삼상31장).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잘 듣고 두렵고 떨림으로 순종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토록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마음에 두기를 원하셨을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 것이 저주를 받을 만큼 무서운 죄란 말입니까? 4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4) 이 말씀의 배경은 민수기 25장입니다. 거짓 선지자 발람의 속임수에 넘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싯딤 광야에서 모압 여자와 음행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분노하시고 염병으로

24000명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런데도 회개치 않고 시므리가 보란 듯이 미디안 여인 고스비를 데리고 장막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분연히 일어나서 창을 들고 쫓아가서 그들의 배를 꿰뚫어 죽여 버렸습니다. 그때에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길이 멈추고 염병이 그쳤습니다. 아무도 죄에 대해서 책망하지 않고 싸우지 않고 있을 때 레위 지파의 후손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죄와 싸운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 하였음이니라”(민25:11-13) 레위의 자손 비느하스를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레위의 자손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레위의 자손들이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언약이란 하나님과 맺은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택한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라는 의미는 언약의 하나님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신 후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출19:5,6) 언약은 율법, 계명, 하나님의 법도, 명령과도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지킨다는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과 계명, 율법을 지킨다는 뜻입니다. 언약백성이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 곧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언약으로 받았을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느하스를 통해서 레위지파와 맺은 언약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지도 않았습니다. 언약 백성된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들이 언약을 파기했을 때 하나님은 어김없이 그들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언약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

까? 5절을 읽겠습니다.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
 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5)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고 하십니다. 우리는 언약하면 얽매이
 는 것, 자유를 구속당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언약은 원어
 에 ‘베리트’로서 ‘꼭 묶다’ ‘붙들어 매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꼭 붙들어 매기 때문에 부담스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
 때문에 죄를 짓지 않습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언약 때문에 하나님
 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함부로 죄와 타협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러나, 하나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입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생명을
 얻고, 더욱 풍성한 생명을 누리게 됩니다. 언약 안에 있을 때 평강이 있
 습니다. 결혼은 한 남자와 한 여자의 언약으로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누군가
 가 한 여자 혹은 한 남자에게 매이는 것이 싫다고 언약을 깨 버린다면 어떻
 게 됩니까? 부부간의 평화는 깨지고, 사랑은 불신과 미움으로 변하며, 결국
 은 이혼으로 파국을 맞게 될 것입니다. 여기에 참된 행복이 있을까요? 이처럼
 하나님의 언약에서 떠날 때 인간의 모든 불행과 고통, 방황과 좌절은 시
 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떠날 때 농사는 가뭄과 재해로 흉작이 되
 고, 사업은 잘 나가다 실패하고, 자녀들은 빼돌어지고, 가정은 평화가 없어집
 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버릴 때 질병과 사고와 재앙이 찾아오고, 죄와 사탄
 이 왕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란 언약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과 평강이 임하는 것을 의미하는 동시에 언약을 버린 자에게
 는 사망과 저주와 고통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생명과 평강의 언
 약을 주신 목적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생명
 과 평강의 언약을 대할 때 마다 이 언약가운데 거하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
 고 도우시며 은혜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 경외함으
 로 언약을 지키고자 합니다. 동시에 이 언약을 버렸을 때 임하는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의 채찍을 알기 때문에 더욱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언약을 지키
 고자 애쓰게 됩니다.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내렸
 을 때 그물이 찢어지도록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체험한
 시몬 베드로는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

로소이다”하고 고백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임을 알 때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며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처럼 제사장들이 레위 언약 안에 거할 때 그들은 제사장의 직분을 어떻게 감당하였습니까? 6절을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으며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6) 그들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습니다. 진리의 법이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입을 열어서 가르칠 때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주의 종들이 섞이지 않은 순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은 교회의 첫째 되는 사명입니다. 오늘날 서구 기독교의 몰락은 설교단에 가장 큰 원인이 있습니다. 자유주의 신학이론으로 설교자들이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지 않는데, 듣는 청중들이야 오죽 하겠습니까? 한국교회는 하나님의 일방적이고 주권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세계 기독교 역사상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노우호 목사님 같은 분은 한국교회의 문제점으로 목회자들이 성경말씀을 전체적으로 가르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성도들은 윤리가 세워지지 않아 사회의 빛과 소금 역할을 못하게 되었으며, 목회자들 역시 권위주의, 물질주의, 교회성장주의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또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화평과 정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였습니다. 그들의 삶은 언행일치하는 삶이었습니다. 말로나 행위로서 불의와 악을 행하지 않았습니다. 그러할 때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6b)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들을 돌이켜 구원의 길로 인도하려면 무엇보다 진리의 말씀이 있어야 하고, 내 자신이 먼저 하나님 앞에서 화평과 정직으로 동행하여야 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라기 선지자 시대의 제사장들은 어떠했습니까? 7~9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은 그의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됨이거늘 너희는 옳은 길에서 떠나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 하는도다 나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니 너희가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느니라 너희가 내 길을 지키지 아니하고 율법을 행할 때에 사람에게 치우치게 하였으므로

나도 너희로 하여금 모든 백성 앞에서 멸시와 천대를 당하게 하였느니라 하시니라”(7~9) 제사장은 여호와와 사자로서 그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했습니다. 지식을 지킨다는 것은 여호와와 율법을 지켜 행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 제사장들은 “**많은 사람을 율법에 거스르게**”함으로서 레위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2000년 전에 우리 조상에게 주어진 언약이므로 오늘날에는 지킬 필요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오늘날에도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율법은 폐하여졌다, 예수님이 율법을 완성하셨으므로 우리가 율법을 행할 필요는 없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하기 위함이지 지키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 라고 가르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율법을 선포하면 율법주의라고 비난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일점 일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마5:17,18) 예수님은 율법의 근본정신과 의미를 온전케 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산상수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은 구약의 율법보다 더 높고 지키기 어려운 하나님의 법입니다. 이는 우리가 성령의 도우심으로만이 지킬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 되셨다,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의미를 예수님이 율법을 다 이루셨으므로 우리는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다고 잘 못 이해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율법은 수 천년 전의 이스라엘의 문화적 배경에서 주어진 법이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로이드존스 목사님은 율법에 대하여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대한 영구한 표현입니다. 율법은 잠시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신 후에 율법이 폐하여 졌다느니 더 이상 하나님께서 율법을 지키기를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해서는 안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모든 사람에게 그 율법을 가지고 요구하십니다. ‘우리는 더 이상 율법에 의하여 판단받지 않는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 따라서 판단 받을 뿐이다’ 이런 가르침도 잘못되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여 판단 받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판단의 영원

한 기준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할지라도 율법과 영원히 작별을 고하는 것이 아니고 율법을 여전히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율법은 이제 가버렸다. 이제 우리는 은혜 아래 있다.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 표준이 더 낮은 것이다. 우리는 죄 용서를 받았다.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상관없다’ 그런데, 이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다함을 얻은 자의 생활이 이제는 죄를 지어도 예수님의 보혈만 의지하면 무조건 어떤 죄도 다 용서 해 주시는 은혜의 자유를 얻은 것으로 생각하면 착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도 죄는 동일한 율법의 정죄가 있습니다. 죄는 여전히 죄입니다. 죄는 회개하는 일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칼빈은 기독교강요에서 율법은 영원한 하나님의 법으로서 시대를 초월하여 지키고 순종해야 할 말씀임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런데 일부 무지한 사람들은 이 점을 이해하지 못하고, 경솔하게도 모세의 글 전체를 내어던지며, 율법의 두 돌 판을 없애버린다. 이런 사악한 생각은 머리에서 제거해야 한다! 모세는, 율법이 죄인들 가운데서는 죽음 이외에 아무것도 이루어낼 수 없지만, 성도들 가운데서는 더 낮고 훨씬 탁월한 용도가 있다는 것을 훌륭하게 가르치고 있는 것이다. 그는 세상을 떠나기 얼마 전, 백성들에게 다음과 같이 명했다. “내가 오늘 너희에게 증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이는 너희에게 헛된 일이 아니라 너희 생명이니”(신 32:46-47). 만일 의의 완전한 모범이 율법에 제시되어 있다는 것이 아무도 부인 할 수 없는 사실이라면, 올바르게 정의로운 삶에 대한 규범이 우리에게 필요가 없든지, 아니면 율법에서 떠나서는 안 되든지 둘 중의 하나일 것이다.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규범은 여러 가지가 아니고, 오직 한 가지 영구하고 불변한 것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의 삶이 끊임없이 율법을 묵상하는 삶이라는 다윗의 진술(시1:2)이 어느 한 시대에만 국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 끝 날까지 모든 시대마다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신구약 66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바 된 하나님의 음성이고 명령으로 알고, 듣고 마음에 새기며 순종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종 된 우리의 첫째 되는 사명은 지식 곧 율법의 말씀, 언약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로서 이 시대 양무리에게 잘 가

르치고 전파하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II.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10~16)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언약을 깨뜨렸다고 책망하십니다. 10~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한 아버지를 가지지 아니하였으나 한 하나님께서 지으신 바가 아니냐 어찌하여 우리 각 사람이 자기 형제에게 거짓을 행하여 우리 조상들의 언약을 욕되게 하느냐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 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이 일을 행하는 사람에게 속한 자는 깨는 자나 응답하는 자는 물론이요 만군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자도 여호와께서 야곱의 장막 가운데서 끊어 버리시리라”(10~12) 하나님께서는 본래 이방인과의 결혼을 철저히 금하셨습니다. 신명기 7:3,4절에 보면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네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네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네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신7:3,4) 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이방인과 결혼하게 되면 그 배우자에게 유혹을 받아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이방결혼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을 야곱의 장막에서 끊어버린다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함부로 결혼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보다 외적인 조건이 더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얼굴이 얼마나 예쁜가? 집안이 얼마나 부자인가? 이것이 결혼의 조건이었습니다. 그러니 영성을 잃어버리고 세속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왜 노아시대를 심판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았기 때문입니다(창6:2)” 그들은 육체가 되었고 하나님의 영이 도저히 그들과 함께하실 수 없었습니다. 솔로몬은 많은 이방여인들을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렇게 하면 외교적으로도 좋고 마음껏 즐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온 나라는 우상천지가 되고, 나라는 분열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사랑

하시느 성결을 욕되게 하니 하나님께서 치실 수 밖에 없었습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범죄하여 이방 여자를 아내로 삼아 이스라엘의 죄를 더하게 하였으니.....이방여인을 끊어버리라”**(에10:10,11) 느헤미야는 어떠했습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자들의 머리털을 뽑아 버렸습니다(느13:25). 우리는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결혼을 해야 하겠습니다. 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 중에 하나는 쉽게 이혼하는 것이었습니다. 결혼해서 살다가 마음에 안 들면 조강지처를 버리고 다른 여자와 결혼하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남편에게 버림받고 눈물로 하소연하는 여인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가 이런 일도 행 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도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13) 남편에게서 버림받은 여인들이 나아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제단을 적셨습니다. 이를 보신 하나님이 이혼한 자들의 봉헌물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14b절을 보십시오. **“이는 너와 네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네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네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14b) 처음 결혼한 아내는 평생의 짝이요, 서약한 배우자입니다. 언약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이 중요하듯이 결혼언약도 중요합니다. 결혼은 부부가 평생 하나님의 뜻을 위해 하나 되어 살겠다는 언약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마19:6) 고하셨습니다. 이혼은 성경적으로 보면 간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혼이 얼마나 보편화되어 있습니까? 사탄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사람들로 하여금 더욱 더 죄의 깊은 수렁으로 빠지도록 텃을 놓습니다. 이혼이 이제는 보편적이고 일상적인 현상이 되더니, 동성연애와 동성 간의 결혼을 버젓이 주장하는 단계까지 이르렀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을 타협하고 사탄에게 양보하기 시작하면 어느 순간 독이 무너지듯이 죄악의 물결이 모든 것을 삼켜버립니다. 고 이사무엘 선교사님이 1976년도에 시카고에 선교사로 가셨을 때 미국의 문제가 십계명을 지키지 않는 것이라고 진단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자 몸부림치는 영적싸움이 없으면 죄의 거센 물결을 이겨낼 수 없습니다. 15절에 보면 **“그에게는 영이 충**

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네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15) 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하나만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셨기 때문입니다. 결혼은 두 사람이 합심해서 거룩한 사명을 감당하고 경건한 자손을 얻는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한 눈 팔지 말고 일생동안 배우자에게만 충실해야 합니다.

조나단 에드워드는 아버지가 경건한 목회자였습니다. 어머니도 목사님 딸이었습니다. 어려서부터 철저한 신앙교육을 받아서 하루에 5번씩 기도했습니다. 9살 때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고, 10살 때부터 신앙적인 글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19살 때부터 목사로서 설교를 시작했습니다. 이처럼 어려서부터 철저한 경건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제 1차 대 각성 운동의 주역이 된 것입니다. 그는 자녀들도 철저히 신앙교육 시켰습니다. 인디언 선교의 아버지 데이빗 브레이너드가 그의 사위입니다. 그의 손자 티모시 드와이트(Timothy Dwight, 1752-1817)는 22년동안 예일대학 총장으로 있으면서 많은 찬송가를 지었고 학생들을 영적으로 이끌었습니다. 그의 후손 가운데서 목사와 사모가 300명이 나왔다고 합니다. 부통령이 1명, 주지사가 3명, 총장이 13명, 교수 100명, 국회의원 3명, 법조인이 145명 등이 배출되었습니다. 우리 목자님들의 가정들이 이 시대 이러한 자녀들을 낳고 길러서 사회와 인류공영에 기여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배출하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1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은 아내를 학대하거나 이혼하는 것을 아주 미워하십니다. 그러므로 심령을 삼가 지켜서 거짓을 행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4,15,16절에 반복해서 나오는 말씀이 “거짓을 행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가정에 충실하지 않고 음행의 죄에 빠지게 되면 거짓을 행하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을 사랑하는 사람, 오직 배우자 한 사람만 사랑하는 사람은 거짓되지 않습니다. 심령을 삼가 지

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편단심 민들레처럼 동역자와의 언약을 굳게 지켜야 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오늘 두 가지 언약을 강조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레위 언약과 믿음의 가정을 지키는 결혼언약입니다. 창세기 3장에서도 이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사탄은 할 수 있는대로 레위의 언약과 결혼언약을 깨뜨리고자 여러모로 공격하고 유혹합니다. 언약을 깨고 욕심대로 살 때 잠시 쾌락이 있을지 모르지만 결과는 비참합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얼굴에 똥칠하게 됩니다. 가정이 파괴되어 엄청난 댓가를 치루게 됩니다. 죄가 넘쳐나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생명을 걸고 언약을 지켜야 하겠습니다. 일생동안 언약에 충실함으로 생명과 평강이 영원토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하길 기도합니다.